

동안거 법어 요약

황금털 사자새끼 3천리 밖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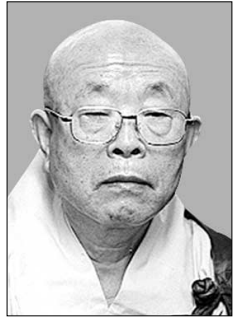
백운영리소가가(白雲影裏笑呵呵)하니 양수지래부여다(兩手持來付與他)로다.

약시금모사자자(若是金毛獅子子)인데 삼천리와견오와(三千里外見譚訥)하리라.

흰구름 그림자 속에서 깔깔대고 웃으니 두 손으로 들고 와서 그대에게 전해 주었네.

만약 황금털을 가진 사자새끼라면 삼천리 밖에서도 어려운 곳을 알아차리리라. (종락)

아침에는 죽을 먹고 한낮에는 밥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이는 해제이건 결제이건 불이건 가을이건 변함없는 선가의 일상생활이기도 합니다. 조사선(禪師)의 생명은 일상성입니다. 그래서 늘 마조선사는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공양을 앞에 두고서도, 또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기방(機棒)을 겨룰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금우스님이었기에 같은 마조회상에 서 공부하고 있던 방거사(龐居士)에게도 한 소리를 합니다. (종락) 금우스님이 밥을 나누는 진지를 하면서 방 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법전 스님 (조계종 중흥·해인총림 방장)

“마음에 경계를 일으켜 밥 받는 것을 이미 유마거사가 꾸짖었다. 가섭존자가 부자를 버리고 가난한 집만 복을 짓게 해주려고 팔사탁발을 다닌 이 이치를 벗어난 거사는 만족스러운가? “그것을 꾸짖는 유마가 어찌 본분종사가 아니겠는가?”

이에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자 거사가 말했습니다. “밥이 입가에까지 왔다가 다시 남에게 빼앗겼도다.”

이에 금우스님이 얼른 진지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 거사가 말했습니다. “한 마디도 필요치 않구나.”

반야의 보검을 중흥으로 휘두르니 그 칼날 앞에 언어가 끊어지고, 밝은 거울을 높이 걸어두니 언구름

속에서 비로인(毘盧印)이 나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경지에서 옷 입고 밥 먹으니, 신통력 부리는 곳에 무엇 때문에 머물렀습니까?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이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그때마다 삼십 방망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종락)

“금우반통(金牛飯桶) 공안의 주인공 금우스님은 마조선사의 법을 이은 대선지시입니다.

그는 점심때가 되지만 하연 공양통을 들고서 승당 앞에서 춤을 추고서 결결대며 말하였습니다. “남자 들어! 밥을 먹어라.” 이 같은 소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줄곧 20년 동안 하였던 것입니다. (종락)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시간에 공양통을 들고 와서 술한 재주를 피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금우스님이 미친 것이니까? 아니면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장경스님은 ‘마치 재(齋)를 마친 후에 경하(慶賀)하며 축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 대광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경과 대광이 고인의 뜻을 제대로 함께 밝힌 것입니까? 금우스님이 손수 밥을 짓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한 뜻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월의 결계대중은 정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밥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서도 늘상이 화두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조계종, ‘북한산 문제’ 진의는?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 발원(KBS 라디오)을 둘러싸고 조계종의 공론조사 수용여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고 스님은 방송에서 진행자가 “공론조사에 동의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사회부장 미산 스님이 공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는 10월 28일 조계종이 3단계 절차를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수용여부를 나타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와 관련 현고 스님은 “대안(비교) 노선에 대한 실측자가 없이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기존 종단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또 “소모적이 아닌 생산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성숙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론조사에 대한 조계종의 속뜻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관계자는 10월 28일 공론조사에 관한 설명회에서 3단계 절차가 사실상 거부안이 잠정적 수용이گان 논란에 대해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고 스님은 11월 5일 방송에서 공론조사에 동의한다면서 진일 보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선 조계종이 정부와 정치적 타협을 해 공론조사 수용을 기본 방침으로 정해놓았지만 대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조계종이 북한산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공약이행을 강경하게 주장하다 3단계 절차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조건부 수용(3단계 절

현고 스님, 방송서 공론조사 수용 시사 ‘3단계 절차’로 우회적 거부때와 달라

시민단체 “타협 경우 명분·실리 모두 상실”

차) 입장을 훨씬 더 누그러뜨림으로써 수용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산 문제에 대해 조계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이 표현한 부도롭게 할 뿐 실제로는 전제조건을 까다롭게 해 공론조사가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수확산·불암산 관동도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한 관계자는 “나쁜 의미에서의 ‘타협’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온 연석회의와 일선반구 상의 없이 결정한다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를 수용한다면?

정부가 공론조사를 이용해 관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의정부 회룡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대응’이다. 실제 회룡사는 ‘북한산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결사장전’을 천명했다.

조계종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몇 년 간 동태대미 사상으로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리’를 위해 ‘명분’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윤주옥 사무국장은 “정부는 관동을 상정해 공론조사를 제의한 것”이라며 “조계종이 쉽게 공론조사에 동의한다면 결과적으로 관동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불교환경 뿐 아니라 불교계의 대사회 이미지 자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등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처님 가신 뚝은 길 가지 마라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오늘은 동안거 결계 날입니다. 당(唐) 나라 때 스님 동안상좌(同安常察)선사의 계승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장부자유충천기(丈夫自有衝天氣)하니, 불향어래행처행(不向如來行處行)’입니다. 대장부는 누구나 하늘을 찌르는 기운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걸어간 길을 향해 가지 마라. (종락)

이 법문은 초학수행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견성한 사람의 오후보인(悟後保任)을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근거가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찻집은 땅에 있고, 뱃길은 물에 있고, 비행기의 길은 공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보조국사(普照國師)께서는 견성은 내가 가야할 길을 아는 것이니, 길을 안 후에 열심히 뉘어서 성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수행(悟前修行)은 맹인이 눈 뜬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고, 오후수행(悟後修行)은 자기가 눈을 뜨고 가야 할 곳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길이 금일결계대중이 각각 가야할 길입니까?

기조특수암전거(幾條綠水岩前去), 일편백운강상래(一片白雲江上來)로다.

몇 가닥 푸른 물이 바위 앞으로 흘러가고, 한 조각 흰 구름이 강물위로 떠오네.

한 터럭이 큰바다 삼킴 누가 알까

원담 스님 (덕성총림 수덕사 방장)



백락퇴중유전신(白浪堆中轉身) 허공박락무잔흔(虛空撲落無殘痕) 저리사비하변로(這裏是非何辨) 운단추아월만천(雲斷秋夜月滿天) 흰 파도속에서 몸 들릴 곳 찾으니 허공이 부서짐에 그 흔적이 없네. 이 가운데 소식을 그대여 알겠는가. 구름 짙은 가을 밤 달빛만 가득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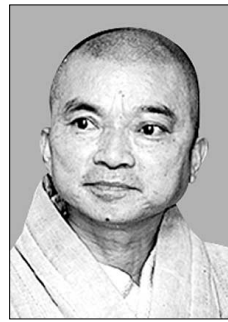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들이 모두 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보았는가! 실사 보았다 하더라도 역시 달것을 쥐고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격이구나.

<원각경>에 이르기를 “큰 원각으로 나의 가람(伽藍)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平等性智)에 안거(安居)하라” 하였는데 대중들은 알겠는가! 위 없는 오묘한 원각심(圓覺心)은 생사와 열반이 없으며 성불함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고 망명된 윤회와 윤회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또한 관대(廣大)하고 넓고 넓어 바깥 경계가 없이 시방세계에 두루해서 여래(如來)로 더불어 일체평등하여 모든 수행이 진실로 두 길에 있지 않느니라.

대중들은 들어라! 빈심(空心)과 진에(眞悲)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여고 네 가지 상(相)의 집착을 여의어 청정(淸淨)한 성품으로 적멸행(寂滅行)에 들어서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라. (후략)

조계산 단풍은 배춧잎보다 붉다

지어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사사본무생(此事本無生)이라 수연처처명(隨緣處處明)이로다.’

이월이 무슨 일이고, 일좌부동경육년(一坐不動經六年)하여 세존이 건명성오도(見明星悟道)한 일이고, 삼처(三處)에서 가섭에게 전불심등(傳佛心燈)함이고, 소림에서 구연 면벽한 달마의 가풍이요, 역대전승대조사 천하중사가 확철대오한 일입니다. 또 이 일이란 우리 남자가 일편단심으로 행주좌와(行住坐臥)간에 걸림 없이 철저히 화두일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종락) 성성적적(惺惺寂寂)한 일념화두 앞에는 지옥천당이 모두 정토(淨土)여서 삼천대천의 어디를 가더라도 무명(無明)이 자취 없이 소멸되어 밝고 밝을 뿐입니다.

‘신료여사지(信了如斯)니 귀가파문처(歸家罷問處)로다.’ 이 일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우리 종지(宗旨)와 종풍(宗風)을 철저히 따르지만 하연 고향의 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을 선지식을 찾아 묻는 일은 마쳤다 할 것입니다. (종락) 지주의 남전보원선사가 황벽에게 물기를 “장이나 들끓은 그 만두고 짙진값은 누구 보고 갔나”라 하고” 하였는데 황벽이 대답을 못했다 합니다.

누가 나에게 짙진 값을 갔나라고 한다면 조계산의 단풍은 화전(火田) 배춧잎에서 붉다 하겠습니까. (후략)

*영축총림 통도사(방장 월하 스님)는 결계일에 앞서 미리 법어를 발표하지 않으며, 고불총림 백암사(방장 서용 스님)는 동안거 결계 법어를 따로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매주 금요일(447호의 경우 11월 7일)에 제작합니다.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있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 제 6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 취임 대법회

대한불교 관음종 제 6세 종정 남천 죽산 대종사님의 취임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 사부 대중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일시: 불기 2547년 10월 26일(양력 2003. 11. 19)
- 장소: 흥본산 낙산교각사 대불보전
- 전화: 02)763-3345. 0054
- 참석 스님께서는 장상, 대가시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봉행위원회
- 고문: 김성각 이인봉 안정암 김화암 방혜학
- 집행위원장: 총무원장 이 흥 파
- 부위원장: 정법륜 김동령 정법성 권운산
- 집행위원: 박송월 김경담 김경철
- 집행위원장: 김지섭
- 집행위원: 황법명 홍경수 김대홍 이법현 유우경 조법호
- 박송월 권종일 윤복봉 양중명 송법은 김경심
- 김경혜 박지성 박지열 김지현 이진성 이월담
- 정준담 양고산 강법천 권용해 이수산 진대명
- 이도오 백무학 오삼보 김종남 이내철 이윤구
- 허도일 이법영 이도인 이효천 이대광

- 봉행위원 (무순)
- 이혜성 정덕장 이상광 김중하 송혜정 이효천 임법경 강성오 석보리 장현성 문상봉 박홍민
- 정법륜 박진선 김성해 김보성 서도현 장보련 최지산 김원산 임법원 김묘해 명보현 강법연
- 한혜성 최동명 김성관 정도영 오묘인 엄해각 김해암 지법정 구보각 정도원 장임동화 임법성
- 김도선 석선혜 김도일 김해광 위보현 고상목 김성래 정연달 이석봉 김원광 노대법성
- 송혜일 정선혜 김경도 이종혜 안법해 이송화 김연순 백정현 전서경 조우덕 이보각심
- 박법일 장영일 추청호 차예산 양해정 김청암 한진자 양덕유 김청덕 김진공 박부진화
- 서천호 정철인 정철송 지혜은 최법주 황해광 정능화 김등명 김법광 이도경 권명일심
- 조법연 장혜정 박보각 한관오 김봉주 최보현 김신아 김해자 조현호 김도삼 조택연화
- 김도오 김법성 전지훈 송보선 김법안 전도각 김등은 심관철 이혜룡 김정중 임지혜심
- 이국자 이다혜 정광현 맹순남 김법인 김묘법 이진성 천혜능 김묘광 배보은 박백연화
- 김법경 황선암 김거룡 최일관 김동선 박석순 김현산 최지은 최자성 박혜산 조자연심
- 윤복봉 김법경 임광덕 조법민 지혜문 김도선 송동선 박담혜 박태선 조학산 임보연화
- 오법륜 황법진 임혜은 손혜산 이의선 한지현 김수련 구동화 장혜월 김창담 배자운심
- 박광명 김계천 박도문 이석송 이성달 정만오 김법정 유정보 유용현 양현우 모명심화
- 전서광 김지호 신원봉 정법지 신도중 김현관 박정원 김법인 이지족 송지덕 엄무각
- 김남천 강성진 조해수 오혜진 정진성 임우공 김정화 조혜명 서효은 허혜수 유법성
- 노정광 백정명 이법륜 정정혜 박도법 김경혜 권청호 김혜일 이운천 권혜은 이운봉
- 김도라 정원봉 성해범 지대용 정법공 이혜연 조혜연 이백산 이도각 이지도 이혜덕
- 김정태 하성진 조해주 하도정 황영직 김재덕 장보광 홍영우 이도성 강도정
- 조법연 장법능 이선광 강법성 이혜관 안영락 송혜원 박도산 주혜원 심봉문 서법은
- 박철명 박지관 박해봉 박혜수 전상원 조도원 양지광 안오명 강백제 이연화심
- 양달일 고원광 오원호 조덕산 전지명 이원영 정종현 조우정 김도연 김법진 김자진
- 신성법 이대광 고연호 이원호 안혜중 이시우 윤도공 이법철 권진용 채창원 윤희경

대한불교 관음종 제 6세 종정 취임대법회 봉행위원장 이 흥 파